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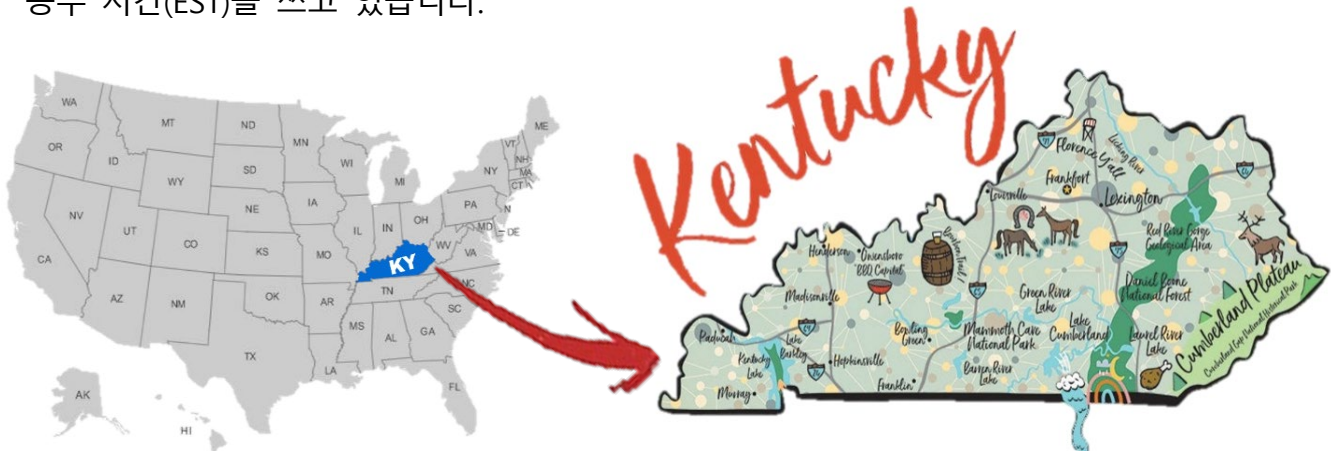
Lexington, Kentucky 를 소개합니다.

임주형(2024-2025 직무과정)

여러분은 미국 켄터키 주 하면 무엇을 떠올리니까. 10 명 중 9 명, 아니 어쩌면 10 명 모두 KFC 를 떠올릴 겁니다. 사실 켄터키 주는 미국에선 KFC 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지만, 한국에선 KFC 의 이미지로 굳어버렸습니다. 이는 켄터키 주에 대한 정보가 한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

미국에는 50 개 주가 있는데 켄터키 주는 15 번째로 연방정부에 가입했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주입니다. 원래는 버지니아 주의 일부였으나 1792 년 분리 독립해 연방정부에 가입했습니다. 켄터키 주는 흔히 미국 중부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부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. 로컬 타임도 렉싱턴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이 미국 동부 시간(EST)을 쓰고 있습니다.



사실 켄터키 주는 '치킨'(KFC)의 도시가 아닌, 말의 도시입니다. 미국에선 켄터키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말입니다. 비옥한 토지의 이곳은 'Blue Grass'로 불리는 파릇파릇한 풀이 자라는 지역입니다. 이런 풀을 먹고 자란 말은 건장했고 강인했으며, 일찌감치 경주마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. 켄터키 주 출신 말은 미국 전역에 이름을 떨쳤고, 곧 켄터키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.

여기에 버번 위스키 제조 방식이 켄터키 주에서 발달하면서 또 다른 대표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.



렉싱턴은 시골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

렉싱턴은 켄터키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. 약 30 만명의 인구를 갖춘 루이빌(75 만명)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. 미국에선 인구 30 만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. **2020 년 기준 미국 전체 도시 중 57 번째(32 만 2570 명) 순위입니다.** 미국엔 50 개 주가 있으니 주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것입니다. 우리에게 익숙한 **신시내티(30 만 9317 명), 피츠버그(30 만 2971 명), 세인트루이스(30 만 1576 명)보다 많은 숫자입니다.** 켄터키 주란 이름에 가려져 그렇지 메이저리그 구단을 보유한 이들 도시보다 큰 규모입니다.

미국은 보통 광역 인구(도시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생활권 인구)로 도시 규모를 평가하는데요. 이를 적용해도 렉싱턴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. **2021 년 기준 렉싱턴의 광역 인구는 52 만명으로 미국 전체 59 번째에 해당합니다.**

렉싱턴 치안은? 미국에서 3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.

어딘가에 정착할 곳을 찾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치안입니다. 그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. 특히 미국은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 많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.

렉싱턴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미국에선 연방수사국(FBI)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 통계를 내는 '세이프와이즈'(SafeWise)란 곳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. **세이프와이즈에 따르면 2019 년 기준 미국에서 세 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렉싱턴이 꼽혔습니다.** 버지니아 주의 버지니아비치, 하와이주 호놀룰루 다음 순위입니다(관련 기사 <https://www.wtvq.com/lexington-ranked-third-safest-city-united-states/>)

렉싱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켄터키 대학교(University of Kentucky)에 근무하는 교수진 및 각종 스태프, 그리고 은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들은 대부분 **교육 수준이 높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**입니다. 이들이 일군 렉싱턴이란 도시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. 밤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미국의 몇 안되는 도시 중 하나가 렉싱턴입니다.

렉싱턴은 교육 도시입니다.

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'Wallethub'는 2022 년 기준 **미국의 'Educated City'를 순위매김하면서 렉싱턴을 24위에 올렸습니다.** 켄터키 주의 도시 중에선 단연 으뜸입니다. 총점 66.17 점으로 **뉴욕-뉴저지-저지시티(New York-Newark-Jersey City, NY-NJ-PA, 25 위 65.23 점)보다 앞선 순위입니다.**(관련 링크 <https://wallethub.com/edu/e/most-and-least-educated-cities/6656>)

쉽게 말해 렉싱턴엔 뉴욕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중이 높다는 말입니다.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교양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또 자녀 교육에 적극적인 사람이 많으며, 각종 교육 시스템도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. 실제로 렉싱턴은 공교육이 발달한 50 개 도시 중 한 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.

렉싱턴은 또 미국의 도시 중 9 번째로 친근한(friendly)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(자료 <https://www.on3.com/teams/kentucky-wildcats/news/lexington-tabbed-as-the-9th-friendliest-city-in-america/>) 고등교육 인구가 많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

렉싱턴은 생활비가 저렴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.

렉싱턴은 생활비가 저렴한 곳입니다. 미국의 임금 관련 정보 회사인 'payscale'에 따르면, 렉싱턴의 생활비는 미국 평균보다 10% 낮습니다. 특히 집세(Housing)가 22%나 저렴합니다. **렉싱턴에선 3~4 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방 2~3 개, 화장실 2 개의 아파트를 월 1200~1500 달러 내외로 렌트할 수 있는데요.** 이는 미국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저렴한 것입니다. 공과금(Utilities)이 미국 평균보다 6% 비싸지만, 10% 저렴한 식품비(groceries)가 이를 상쇄합니다.(자료 <https://www.payscale.com/cost-of-living-calculator/Kentucky-Lexington>)

렉싱턴은 이렇게 생활비가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습니다. 미국 대학 순위 평가등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**US News & World Report**는 **2021~22 년 미국에서 가장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50 개를 선정하면서 렉싱턴을 33 위에 올렸습니다.** 메이저리거 최지만 선수(템파베이)가 뛰고 있어 유명한 플로리다 템파(32 위) 다음 순위입니다.

